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2014.01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2014년의 새 해가 밝았습니다. 후원 회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일터위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은 다일공동체 2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일곱 번째 해외분원인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의 개원식이 있었고, 25주년 기념 학회와 150기 다일영성수련 등 다채로운 25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일공동체가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면서 울고 웃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25주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다일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토론하고 연구하며 비전을 나눌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던 그 감동 그대로 소외된 이웃들의 기근과 아픔이 있는 곳곳을 찾아가서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2014년에 다일공동체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손길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함께 부르며 작은 천사가 되어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014년의 문을 열면서..

작은형제 **침)윈드** 목사 올림



CONTENTS

2014.01

- 02 Happy Birth Day, Jesus~!
- 08 탄자니아에 꿈을
- 16 함께하면 행복해요
- 18 나눔과 섬김의 실천으로 감동을 주는.. 외교부
- 20 밥퍼는 000이다 /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22 다일소식
- 28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29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30 후원안내 / 연말정산안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4년 1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 편집위원 · 김도한, 목정수, 선한주, 이가영, 최가람
 사진 · 김도한, 목정수 디자인 · 제이앤제이컴퍼니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Happy Birthday, Jesus~!

거리성탄예배를 돌아보며 _ 밥퍼나눔운동본부 이지현 부분부장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났고 말 구유에 누우셨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베들레헴의 마굿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988년 노숙인 형제 3명과 함께 무명의 전도사가 촛불 하나 밝히고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한 거리성탄예배가 이제 3000여명이 함께 청량리로 모여 함께 드리는 거리성탄예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예배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귀하고 높고 가치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 갈 곳이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리성탄예배에 100명의 성가대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Looking back on the Street Christmas Worship

_ Lee Ji Hyun, Vice General Manager of Babfor Sharing Campaign Headquarters

Christ was born in the lowest and most humble place, a manger in the small village of Bethlehem, yet it became the highest place for the birth of Jesus Christ. Likewise, the Street Christmas worship started by three homeless brothers together with a fameless assistant pastor holding a candle in their hands in 1988. Now, it has become a worship of 3,000 people gathered together. Our LORD made the worship precious and valuable and we serve Him on the streets.

100 choir members confess their faith at the worship with those who are alienated and poor, and not allowed to worship at the churches because of their poverty.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모두가 함께 했던 아멘의 외침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성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금융그룹을 비롯한 따뜻한 정성을 모아주신 여러 후원업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사차원에서의 후원과 사원들의 자발적인 십시일반으로 모은 정성 모두 감사드리며 특히 새로유교회 4세에서 7세 어린이들이 모은 400개의 저금통은 무엇보다 값진 성탄의 예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400명이 넘는 역대 최대인원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큰 사고 없이 진행된 거리성탄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님, 최흥식 사장님, 하나은행 김종준 행장님, 외환은행 윤용로 행장님,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님, 동대문구청 유덕열 청장님, 2.1연구소 이계안 대표님,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님,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근복 원장님, 한국정책방송 김관상 원장님을 비롯하여 한양대학교 자원봉사단원들, 연인과 뜻 깊은 성탄을 보내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온 커플, 자녀와 함께 온 가족봉사자 그리고 팬들과 함께 조용히 봉사를 하고 간 가수 임창정 자원봉사자에게도 감사의 글을 남깁니다.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했던 거리성탄예배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님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It was such a beautiful Christmas with Amen confessed by all.

We give thanks to the sponsors, including Hana Financial Group, who supported this Street Christmas Worship. Special thanks to the donations made by the united efforts of the group and its members. 400 coin boxes collected from children aged 4-7 of the Saeroun Church especially were the most special gifts this Christmas.

The worship was held without any trouble with the help of more than 400 volunteers, which set a new record. We express our gratitude to Hana Financial Group CEO Kim Jung-tai, Hana Financial Group President Choe Heung-sik, Hana Bank CEO Kim Jong-jun, Korea Exchange Bank CEO Yun Yong-ro, Chairman of Presidential Committee for National Cohesion Han Kwang-ok, Head of Dongdaemun-gu Office Yoo Deok-yeol, 2.1 Institute Chairman Lee Kye-ahn, Seok Sung Corporate Taxation CEO Cho Yong Geun, ChildFund Korea CEO Lee Je-hoon, Director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Lee Keun-bok, KTV Director Kim Kwan-sang and volunteers from Hanyang University, a couple who made their Christmas more meaningful by volunteering for the worship, family volunteers with their kids, and Mr. Lim Chang Jung who quietly served the worship with his fans.

It was the warmest and happiest Street Christmas Worship service ever.

We again thank those who supported and served in the worship.



오른쪽부터 하나금융그룹 최흥식 사장님, 김정태 회장님, 하나은행 김종준 행장님, 외환은행 윤용로 행장님



동대문구청 유덕열 청장님



2030산악회(이현정님 외 36명), 개인참가자(박주현, 유명훈, 이성완, 이윤영, 이주형, 이주희, 정성진, 한유나), 국민대통합위원회(송변선 국장님 외 15명), 명지향(김지혜님 외 18명), 하나금융그룹 봉사단 100명, 한양대(강도원, 강우리, 강임호, 강지연, 강지영, 강찬희, 강필호, 강효빈, 고창우, 곽범신, 구미향, 구민정, 권경복, 권순찬, 권하은, 길수영, 김경아, 김경희, 김고은, 김규림, 김근영, 김나영, 김동원, 김명옥, 김명주, 김민석, 김민정, 김민주, 김별, 김보희, 김상곤, 김새롬, 김소연, 김소영, 김수경, 김수연, 김영우, 김영은, 김예찬, 김우현, 김정란, 김주은, 김태규, 김태윤, 김태희, 김해찬, 김현경, 김현진, 남호철, 노재숙, 문일천, 문진영, 박미선, 박세준, 박수환, 박원종, 박은영, 박지애, 박진선, 박태영, 박형곤, 범준석, 변지웅, 변해경, 서정명, 서혜린, 설정임, 손경환, 신용진, 신지은, 신현선, 심세영, 안혜지, 안효석, 양예은, 엄경인, 연근모, 오정록, 우종우, 유혜림, 윤재우, 윤지민, 이가영, 이경렬, 이길호, 이명화, 이무영, 이민성, 이민지, 이상근, 이상현, 이상현, 이승아, 이시은, 이연준, 이영미, 이예은, 이용조, 이원영, 이유진, 이은송, 이정호, 이정호, 이주현, 이주호, 이현승, 이현재, 이희준, 인치평, 임경이, 임광빈, 임미경, 임완택, 임지은, 임진진, 임현지, 장용재, 장홍익, 전동환, 정삼수, 정수희, 정예진, 정재원, 정재준, 정진백, 정하빈, 정혜린, 조경제, 조대희, 조민웅, 조형배, 주영아, 진선도, 차은별, 차현지, 채병훈, 채훈배, 최성환, 최수인, 최윤호, 최재훈, 최정은, 최현진, 최혜영, 추서현, 탁정애, 한용호, 한중환, 허윤, 홍혜원), 임창정 갤러리(임창정님 외 20명), VMS신청자(김근택, 김민지, 김병섭, 김선주, 김영재, 김찬식, 김철민, 박덕준, 박동희, 박승희, 송찬호, 송현진, 오유미, 양기춘, 이성은, 이예슬, 이정하, 이태형, 이채현, 정은, 조보배, 조아름, 최은서, 태윤희, 함혜윤)

하나금융그룹 + DaIL 다일공동체
하나은행 KEB 외환은행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의문 동대문구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KEA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일이화 세무법인 석성
HITEJINRO KB 국민은행 財團法人 洋賢 이브자리 소망교회
동아쏘시오그룹 HMM SAJO 선+정혜영 다일공동체 협력대상 HERBALIFE
친애저축은행 한국중부발전주 ADVANTECH SK 서울석유주식회사 DOOSAN
서울우유 CG 건설공제조합 daedong DaIL 서울다일교회 LB인베스트먼트
대한변호사협회 고려대학교KNA 동부문화재단 일신건영 citibank
동아원 DongA One Corporation GOLFZON SG & G opas.net (주)석수&푸리스

for your Happiness

탄자니아에 꿈을... Bringing Hope to Tanzania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_변창재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Tanzania Dail Community _ By Chang Jae Byun, director of Tanzania Dail Community





Tanzania Dail Community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올해 4월, 배식을 하고 있는 कुन्दुची 채석장 공터 입구에 위치한 90평 남짓한 땅을 구입하여 밥퍼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1차 공사를 진행 하였고 현재 2차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동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창고로 지은 콘크리트 건물 위에 올려 놓았고 파란색 컨테이너가 놓였던 자리에는 정화조를 파서 화장실을 만들고 그 옆에는 주방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노천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릴 때면 장작이 꺼질까 노심초사하였고, 뜨거운 태양이 내려 쬐는 날이면 용광로 같은 불구덩이에서 밥을 지었던 것입니다. 또한 밥퍼 봉사를 위해서는 4시간~5시간 정도 센터에 있어야 하는데 특히 여자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화장실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2차 공사를 통해서 주방과 화장실이 지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주방 시설을 갖추어서 날씨와 관계 없이 효율적인 요리 및 밥퍼 메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청결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올리기 위한 기둥 작업을 마치고 기둥 위에 벽돌을 더 올려 지붕의 골조를 완성하였습니다. 보통 이 지붕 골조를 제작하기 위해 벽돌을 올리는 작업은 위험하여 기술자들이 꺼려하는 작업임에도 저희와 같이 일하는 기술자 '주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퍼 센터에 아침 일찍 나와 지금까지의 모든 공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기술자들과 일용직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공사의 속도 또한 늦춰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성실한 기술자 '주마'를 만나서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체가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Dail Community Tanzania has purchased a piece of land a little over 290 square meters (3,200 square feet), located in front of Kunduchi quarry where it is providing meals and building a Dail Center there.

The first phase of construction had been completed in June and the second phase of work is currently in progress. A container house was moved to the top of the concrete warehouse to be used as the office, the site where a blue container used to be is now a water closet with a septic tank buried beneath, and a kitchen is being built next to it.

Since January this year, we have been cooking meals in the open, constantly worrying about losing fire in the rain and burning firewood to cook under the scorching sun, which made it feel like working in a smelting furnace. The volunteering requires the presence of volunteers for about four to five hours at the site, and for them to hold themselves was not an easy task, especially for the female volunteers. Once the second phase is completed, there will be a kitchen and the water closet - Thank God for that!

With a decent kitchen, we can cook efficiently not minding the weather and come up with the menu to serve. The volunteers will be able to work under a cleaner environment. Just the thought of it makes us happier than ever.

Also, we have finished erecting the pillars which will support the roof and added more brick thereto to complete the roof frame.

It is a dangerous job to put the bricks together to build the roof frame, and even the skilled craftsmen shun the job. However, Juma, the craftsman we work with, has shown up at the work site early in the morning every single day and worked every step of the construction until now.

Here in Africa, the workers, skilled or not, usually act as they please, and construction work being delayed is almost a norm. But Dail Community Tanzania was able to keep up with its schedule, thanks to Juma, the faithful craftsman. Everything about this construction is under the mercy of God, and we are thankful to every bit of it.

벽돌을 쌓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면 콘크리트를 잘 굳게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물을 뿌려 줘야하지만 수돗물이 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압도 세지 않은 탄자니아에서 저 높이 쌓은 벽돌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들에 핀 백합화도, 하늘을 나르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은혜와 만나를 내려 주시듯이 현재 다레살람은 우기입니다. 11월~2월 사이가 소우기, 3월~5월 사이가 대우기입니다. 매일 새벽 쿤두치 밥퍼 센터에 비를 내려 주셔서 쌓여진 벽돌에 물을 흠뻑 적셔 주십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시간에는 비를 거두어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공사도 진행하게 해 주시고 벽돌도 말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쿤두치 채석장 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탄자니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를 해 주시는지 너무나도 잘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축뿐 아니라 탄자니아 다일공동체가 견고히 자리를 잡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평생천사후원(1004만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를 위해서 평생천사후원이 되어 주신 윤정혜 권사님, 박미자 권사님, 정선희 전도사님, 홍문희 원장님, 문권성 원장님, 이숙의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밥퍼센터에 이어 이제 곧 세워질 아프리카 다일비전센터를 위해서 평생천사후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Bringing Hope to Tanzania

Structures built with brick and mortar or concrete needs a few days of watering, so that they will harden properly. But in Tanzania, getting the water supplied through the pipe is such a luxury we cannot expect it at all times, let alone getting it in strong enough pressure, so that we can spray the water to the high-rising walls and brick.

However, as the Lord cares for every lily in the wild and every bird flying in the sky, we are blessed by the precious kindness and manna of the Almighty - Dar es Salaam is currently in the raining season! Between November and following February is the small raining season, and March and May is the big raining season here. The Lord sprinkled rain over the stacked brick, soaking them to become stronger. When we have to start the work, the rain stops and the sun comes out for us to continue the work and also for the brick dry.

Just this case alone showed how much the Lord loved the souls of the children at Kunduchi quarry, and allowed us to feel and realize how much intercessory prayers you had dedicated for Tanzania.

Not only the construction work, but all other issues required by Dail Community Tanzania to take a firm root in Tanzania are being supported by the Lifelong Angel Donations (of KRW 1,004). I dedicate a heartfelt appreciation to those who pledged the Lifelong Angel Donations, deaconesses Jung Hye Yoon and Mi Ja Park, preacher Sun Hee Jung, Directors Moon Hui Hong and Kwon Sung Moon and assistant administrator Sook Ui Lee.

The Lifelong Angel Donations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for the Dail Vision Center Africa, of which construction will soon be completed after the Bapfor Cente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Donation and support programs from you and the donors will be sincerely appreciated.



그리고 밥퍼센터 완공 감사예배와 다일비전센터 착공식을 위해 이사장이신 최일도 목사님과 김연수 상임이사님께서 평생천사후원회원들과 비전트립팀을 인솔하시어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탄자니아에 오시게 됩니다.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퍼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륙!
 꼭 한 번은 밟아 보아야 하는 땅,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로 온 맘 다해 초청합니다.
 Karibu sana! (카리부 사나! 열렬히 환영합니다!)

For the commemoration service for the completion of Bapfor Center and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Dail Vision Center, President of Dail Community, Rev. Il-do Choi and Vice President, Yeon Soo Kim will lead the Vision Trip Team and Lifelong Angel Donors to make a 10-day trip to Tanzania from coming January 27 to February 5. I would love to have them here in Tanzania and help us share the warm meals to my neglected children in need and spread the word of the Lord's good work to the people.

Africa, the beautiful continent our God created!
 Africa, the land you must visit at least once in your lifetime!
 Karibu sana!
 (We Welcome you with all our hearts!)

후원문의 070.4099.8686, 02.2212.8004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Inquiries 070.4099.8686, 02.2212.8004

Sponsorship Account
 Kookmin Bank 467701-01-233964
 Account Holder: Dail Social Welfare Foundation

밥퍼밴드는 사랑입니다

밴드 1개 5,000원으로
 빈민촌 아이들 20명을
 배불리 먹일수 있습니다
 빈민촌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문의
 서울다일교회 02.2243.8004 / 임정순 전도사 010.8862.0834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 부분부장 이지현 목사 010.4205.5004

나눔과 섬김의 실천으로 감동을 주는.. 외교부



배식봉사하시는 외교부 윤병세 장관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er, Yun Byung-se & Trainees & Babfor

1월 4일 새해를 시작하는 첫 토요일, 외교부 윤병세 장관님과 외무영사직 연수생 40여명이 밥피나눔운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탈한 웃음을 멈추지 않으시며 함께 봉사한 어린아이들까지 세세히 살피며 배려하시는 윤병세 장관님의 모습은 함께한 봉사자들에게도 긍정의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100포기의 배추를 절여 김장을 하는 연수생들의 손길도 참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도,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국무위원들부터 술선수범하는 자세로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하고 '나눔과 섬김의 배려문화' 확산을 위하여 새해 첫 행사를 노숙자, 무의탁 어르신들을 섬기는 밥피나눔운동본부에서의 봉사활동으로 함으로써 술선수범해 주셨습니다.

외교부는 예전부터 밥피의 단골 봉사팀이며 장관님, 차관님, 대사님 그리고 외교부 직원 모두가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나눔과 섬김의 자세가 아름다웠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감동을 줍니다.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계속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외교부의 감동 이야기는 2월 소식지에 이어집니다.



함께하면 행복해요

It is joy when we are together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의 사랑나눔 _밥퍼나눔운동본부 이지현 부분부장

Love Sharing by Korea Franchise Association
_Lee Ji Hyun, Vice general director at Babfor sharing Campaign headquarters

바람이 싸늘해지는 12월에 따스한 사랑의 나눔이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있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올해의 송년회를 나눔과 섬김 그리고 봉사로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송년회처럼 분위기있는 호텔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보낼 수 있었지만, 허탈하게 소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의미있고 뜻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 아래 가장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자리가 어디인지 찾아보니 바로 밥퍼였다고 합니다.

밥퍼의 앞마당에 오전부터 어르신들에게 이 겨울 지지 떨어지지 말라고 3톤의 쌀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고 그 외에도 필요한 생필품들을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오후 1시부터 각 프랜차이즈협회에 등록된 업체들의 조리차량이 하나둘씩 밥퍼 주차장을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각각의 차량에서 피자, 닭구이, 닭강정, 보쌈, 돈까스 등이 조리되었습니다. 떡을 찌는 차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솟아오르고 주방의 큰 솥에서는 전골육수가 깊은 맛을 내며 끓었습니다. 5백 여명의 인원을 예상하고 준비하였는데 예상을 깨고 1,200여명의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이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그 날 참여한 많은 대표님과 임직원들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밥퍼 현장에 와보니 새로운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삶도 다시 돌아보고 오늘과 같은 의미있는 나눔을 더욱 자주 갖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협회와 더불어 각 업체별로도 밥퍼나눔운동본부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감동의 말씀에 저희 모든 스태프들 역시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In a chilly, windy December we had Love Sharing at the Bapfor share movement headquarters. Korea Franchise Association decided to have volunteer sharing and service as their year-end party. They could have spent the party at a hotel eating delicious food, yet they looked for a place where they could beautifully share and serve others rather than spending time meaninglessly. What they found was the Bapfor.

They supported elderly people with many necessities including three tons of rice they stacked up in the morning. At 1:00 in the afternoon, cooking cars belonging to each enterprise registered to the franchise association one by one filled up the parking lot of the Bapfor. Each cars cooked delicious food such as pizza, roasted chicken, chicken cracker, Bossam (boiled pork eaten with a salty sauce and wrapped in greens) and pork cutlets, etc. Steam came up from the cars making rice cakes and stew boiled from the cars making meat broth. It was for 500 people, but exceeding our expectations there was a long line of 1,200 homeless people and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The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event said that they found a new meaning of life, that it was a time to look back on their life and decide to share more.

Now, not only the Franchise Association itself, but each enterprise belonging to the association also promised to join the Bapfor sharing campaign. It was also a touching time for the Bapfor staff when heard their resolution.

밥퍼는 000이다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밥 퍼는 말씀이다

컴비(컴-B) 송은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 옛날 쓰러진 노숙 인을 지나치지 않았던 발걸음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꼭 기억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부터

밥퍼는 진심이다

컴비(컴-B) 김재용

나눔과 섬김은 해도 해도 아깝지 않은 것 같다. 나오기 전에는 귀찮음과 게으름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봉사를 시작하면서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갑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갑니다. 항상 다시 오겠다는 마음으로 떠나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큰 다짐을 하고 떠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분기별 한 번씩은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줘서.

밥퍼는 힘들지만 뿌듯한 활동이다

서울 디지털 고등학교 지승은

맨 처음 1차, 2차를 접 할 때는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1차에서 양파 껍질도 까보고 시금치 물기도 짜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활동이었다. 2차에서는 어르신 분들에게 배식을 해드리고 식판도 닦았는데 허리가 진짜 아프고 힘들었다. 하지만 다 끝나고 나니 뿌듯하고 이런 활동도 가끔 해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

밥퍼는 행복과 즐거움이다

하이트진로 최병주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봉사가 이토록 마음을 쫓하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밥 퍼 봉사를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 내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그만 봉사가 이토록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밥 퍼는 나에게 행복과 즐거움이었습니다.

밥퍼는 나눔 바이러스다

한국오츠카제약 최지연

밥 퍼 봉사활동을 통해 준비하는 사람은 나눔의 기쁨을 깨닫고, 밥 퍼를 통해 식사를 하신 분은 나눔의 고마움을 깨닫는다. 이 고마움은 언젠가 나눔이란 이름으로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진다.

밥퍼는 부끄러움이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안의정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내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밥상만 연연하며 식도락이라는 허세 섞인 말로 이기적으로 살아오던 중 점점 마음에 부담이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 똑같은 소중한 어떤 존재에게 애정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많은 분들은 그런 저에게 부끄러운 눈물을 주었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밥퍼는 반딧불이고, 촛불이고, 햇빛이다

건설공제조합 이금환

밥 퍼 나눔 운동은 반딧불처럼 작게 시작했으나 점점 커져 촛불이 되고, 별빛이 되고, 달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마침내 온 세상에 빛을 주는 햇빛처럼 위대한 불빛이다.

밥퍼는 내일이다

천호식품 정연정

자의로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봉사를 하며 오히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나눔의 힘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와 마음을 채우는 밥퍼 오래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한 식사 드실 수 있도록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밥퍼는 사람을 살리는 공기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용호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 그러나 숨만 쉰다고 해서 계속 살수는 없다. 무언가를 먹어야 살 수 있다. 밥 퍼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활동 중이다 앞으로 밥퍼가 세계를 살리는 공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BR바람성형외과



밥퍼에 기쁘고 행복한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신 바람성형외과 원장님과 직원분들입니다. 봉사의 바람, 나눔의 바람, 섬김의 바람을 더욱 불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오플렉스



하나되어 함께하는 나눔의 모습에 간사드립니다. 봉사의 선두에 서서 직원들과 함께한 사장님의 모습은 마치 야전 사령관 같으시군요! 단결의 모습을 보여주신 네오플렉스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호식품 천마일



밥퍼봉사 참 좋는데 이거 말로 하기 힘들고 일단 와서 경험해 보세요^^ 천호식품 봉사단 천마일입니다. 밥퍼 봉사를 하는 손길에서 오히려 스태프들에게 감동을 전해준 천호식품 봉사단 천마일 최고입니다!

한국오츠카제약



겨울이 시작인데 벌써 봄을 맞이한듯 노란색의 단체복이 마치 봄 개나리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오츠카제약의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훈훈한 하루를 선물해 주신 오츠카제약 최고!!!

롯데월드 나누리회



밥퍼의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자장면을 만들어주신 롯데월드 나누리회입니다. 진한 꽃의 향기는 멀리 있어도 느껴지지요 참 아름다운 봉사팀이라는 것을 옆에만 있어도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컴-B



연예인으로 구성된 봉사단 컴-B 송은이씨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활기찬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셨던 날입니다! 개인의 차량을 모두 놓아두고 버스 한 대로 이동하며 봉사하는 모습도 멋졌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KNL게이트



작은 인원!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게 힘차게 봉사한 KNL 게이트입니다. 호흡이 적적이고 처음하는 봉사답지 않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KNL게이트 다시 만나고픈 아름다운 봉사팀입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밥퍼봉사가 최고야 엄지손가락 번쩍 들어주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임직원 여러분들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어찌 지났는지 모르게 힘들지 않았던 너무나도 즐겁게 밥퍼를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감사합니다!

한국벤처투자



한끼 식사로 사랑을 전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따스한 밥을 나누는 참 된 의미를 알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입니다. 밥퍼봉사가 4번째이신 사장님은 이미 봉사의 달인이십니다. 함께한 시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랜드-THANH CONG 직원들 후원과 봉사

한국의 이랜드가 의류생산 국영기업이었던 THANH CONG 인수하여 베트남 내수 판매는 물론이고 유럽 국가에 의류를 수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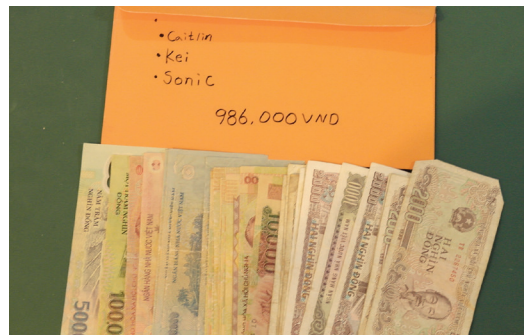
그 THANH CONG의 김성규 본부장님과 직원들이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 센터를 방문하여 후원과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김본부장님은 봉사를 위해 직원들 대상으로 봉사 희망 신청을 받았는데 많은 직원들이 봉사 참여를 희망하여 희망자 중에서 선별하여 참여하게 되었다며 많은 직원들의 봉사 참여에 기뻐하였습니다.

사랑의 창고 세일

Caitlin, Kei, Sonic 세 학생은 호치민에 있는 호주인터내셔널 스쿨의 4학년 학생들입니다. 세 명의 학생들은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던 물건들을 모아서 창고세일을

하여 판매한 전액 986,000동(약50,300원)을 가난하고 헐벗은 베트남의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베트남다일공동체에 후원하였습니다.

세 명의 학생 중에 한국학생인 Sonic(고범준)은 장래 희망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Sonic 학생의 그 마음이 너무도 따뜻하고 대견하기만 합니다. 꼭 그 희망이 이루어지길 모두 기도해 주세요.



천사 봉사자들과 함께한 나눔 현장

한국남부발전과 문화소사이터티가 함께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눠 밥과 빵을 정성스레 만들어 나눠 때에는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었고,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멋진 집을 기쁘게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배에 페인트를 예쁘게 칠해주시고 배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해주셨습니다. 귀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더불어 더욱 값진 기쁨과 보람을 직접 느끼며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사역 현장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많은 천사봉사자들을 환영하고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나눔의 현장

오늘은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캄보디아 다일공동

체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알록달록 풍선을 정성스레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예쁜 풍선을 손에 든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예쁘게 잘라주시고, 직접 머리도 감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멋지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며 기뻐했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빗질을 하면서요. 오늘도 귀한 나눔의 현장에 동참해주신 봉사자 분들로 인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오신 손님

미국 시애틀에서 앤 선생님(반딧불님)과 친구들이 오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사랑이 담긴 선물도 전해주시고 이틀간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쿠키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팀은 해마다 두 차례 방문하시는 팀입니다. 비록 미국,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스위스 등 국적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친해지면 시끄러워 지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앤 선생님, 그리고 방문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평산과 홍윤희 선생님

한국에서 오신 홍윤희(언어치료사)선생님께서 한 달간 평산(남, 7세, BCP 구순구개열수술아이)의 언어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산이가 소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훌륭하신 선생님께 전문적인 치료를 제때에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매일 매일, 선생님을 기다리며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가하는 산이를 보며 언어치료뿐만 아니라 산이에게 사랑과 관심도 듬뿍 주셨다는 것을 온 가족이

알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홍윤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비 오는 날의 밥퍼!

아이들이 많이 모인 밥퍼하는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하여 천막 아래 웅기종기 모인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 물 웅덩이를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와중에도 신발이 없어 맨발로 진흙탕을 밟고 다니는 아이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맨발로 다니게 되면 흙속에 있는 기생충들이 아이들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성장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채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길 가에는 유리 파편, 못, 쇠 조각들이 있어 아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환경입니다.

하루 속히 밥퍼 센터가 완성 되어 비가와도 아이들이 비 맞지 아니하고 편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날과 더 이상 맨발로 다니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카드 작성 & 아동결연 지원품 지급

날마다 뜨거워지고 있는 탄자니아 쿤두치 밥퍼 센터에 아동결연 아이들이 찾아와 후원 회원님께서 지난 1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시는 성탄카드를 작성하고 결연 지원 품을 받아 갔습니다.

한땀 한땀 정성 다해 옷을 만든다는 이태리의 어느 장인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쓰려고 학교 시험 때 보다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 한 번 못 그려 보고 전혀 글씨를 못 쓰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 탄자니아 공교육의 현주소가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밥퍼 센터가 완성 되면 내년부터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동화책도 읽어 주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과 성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주다일공동체

USA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그리고 다시 제3세계로...

2년 만에 최일도 목사님께서 공식적인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동안 한국내 방송 일정과 아시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의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좀처럼 시간을 내실 수

없었는데 이번에 다른 일정을 취소하시면서까지 미주다일공동체의 사역지를 방문하셨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이번 미주일정을 통해 시카고에서 불기 시작한 다일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바람이 뉴저지와 뉴욕을 넘어, 제3세계 다일의 사역현장에 사랑의 폭풍이 되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필리핀다일공동체

Philippines

최재형 선교사님 가족 방문

토요 어린이예배 때, 필리핀에서 교수로 사역하시는 최재형 선교사님 온 가족이 오셔서 함께 섬겼습니다. 예배 중 특별순서도 있었습니다.

최선교사님 삼부자가 사모님의 반주에 맞춰 트럼펫, 색소폰,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동안 그만 우리 아이들이 뽕~ 갔네요. ^^
선교사님 온 가족은 다일의 전통에 따라 무릎 꿇고



빵도 나누고, 청소도 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네팔다일공동체

Nepal

포카라 다일빵퍼

5년 전 네팔 수도인 카투만두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엔 네팔 포카라 지역 빈민촌 내에 있는 사하라 초등학교에 다일 빵퍼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네팔인 타루 목사님과 함께 중국다일공동체에서 성장한 제빵사 리일선교사 부부가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빵퍼 사역에 이어 네팔에서도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타루 목사님께서 빵퍼를 준비하며 '좋아요!', '주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계속 외치며 기뻐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 포카라 다일 빵퍼를 준비하는데 돕기 위해 다일공동체의 오랜 후원자이신 김경미 집사님 가족이 방



문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살다가 지금은 포카라에 살고계신 타루 목사님의 친구 분도 오셔서 다일빵퍼를 위해 자원봉사로 돕기로 했습니다. 주안에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포카라 다일빵퍼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맛있는 빵이 만들어져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누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그날을 소망하며 히말라야 안나푸르나가 보이는 포카라에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밥퍼나눔운동본부

밥퍼에는 따뜻함처럼 난로처럼 기쁨이 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온 신혼부부 조장현, 박해옥 부부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찬 손을 녹이며 열심히 봉사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내일 또 올게요. 혹시 근처에 머물만한 숙소가 있나요?"라는 물음에 어디서 오셨는지 물으니 군산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토요일 군산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이고 뜻 깊은 신혼여행을 보내고자 밥퍼로 봉사 신혼여행을 온 것입니다.



이 부부의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씨앗이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삶이 시작될 때

작자 미상

태어날 때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시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이 20세일지, 30세일지,
아니 40세, 50세, 60세일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와도 꼭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소박한 삶의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때
진실한 삶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받아들이며
지난 일을 돌아봐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 나갈 때
겸허한 삶이 시작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나의 시간과 능력과 사랑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을 때
사랑의 나눔
그 아름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진리 안에서
삶의 참 뜻을 발견할 때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비범함을 키워 나갈 때
빛나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흐르는 시간속에서
영원이 문을 열어 다가섬을 느낄 때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신규후원자

2013.11.26~2013.12.31

(주)네오플렉스,(주)대일,(주)에스티에프,(주)화인테크,108목장5-12,간기현,강미선,강석주,강수현,강점도,강택상,강호진,건강하세요!,고근수,고영재,곽기영,곽명순,곽서영,구름산3-4,구명해,구복예,구승희,구완성,구용석,구원호,구자영,국민대통합위원회,권민성,권순천,권영숙,권영순,권영준,권용화,권혁범,김경근,김경민,김경윤,김경자,김기정,김도연,김도형,김도훈,김라희,김명관,김무성,김민수,김민영,김민욱,김민정,김봉섭,김상국,김석보,김선경,김선구,김선기,김성구,김성남,김성식,김세윤,김수정,김수진,김수현,김수현,김순경,김승룡,김안신,김영상,김영민,김영자,김영진,김영훈,김용순,김용일,김용희,김유래,김은실,김은영,김은호,김재경,김재환,김정연,김정임,김정환,김준우,김지선,김지연,김진형,김창현,김태홍,김학수,김한기,김향미,김혁민,김현정,김형도,김형우,김형태,김혜경,김혜정,김호석,김효선,나영남한은,나텔레콤주식회사,남경오,남광우,남다인,네팔마아후원,노귀례,노미자,노양호,노한중,덕성중학교,도익원,돈암교회,동기현,신영순,동아원(주),류세중,류현열,문금순,문보상,문서현,문석현,문시은,문영자,문용필,문종석,미소금융중앙재단,민승준,민태희,바이오트로닉코리아주식회사,박경용,박교문,박기운,박남식,박상희,박선중,박성미,박성욱,박성환,박세환,박신애,박용복,박은숙,박재만,박재훈,박정애,박준범,박중용,박지영,박춘방,박한권,박현수,박혜란,배경도,배정아,백종현,백현희,변길자,변은혜,사론카페(김경애),서국길,서득락,서리차드현,서상호,서울교육연수원,서윤경,서윤자,서정선,서중보,서태원,소지현,손은하,송교도,송대영,송봉석,송시훈,송재순,송현배,순천대역량강화,신경미,신경진,신은철이경남,신자영,신종민,심봉준,심인우,심재일,심진화,안미경,안성기,안수진,안영수,안은제,안재현,안종관,안필련,양경택,양미선,양영숙,양준석,어드벤처케이알(주),염태영,영춘,오광자,오두현,오민영,오스미 코지,오승택,오영미,오윤지,오익석,오인택,원남훈,유덕희,유만수,유주승,유치우,유혁상,유현정,유현주,윤기산,윤문수,윤서현,윤양희,윤인섭,윤준오,윤종석,윤진웅,윤찬영,윤채원,윤재현,윤향기,은순옥,이경순,이경훈,이규선,이근무,이금,이동규,이두근,이명남,이미경,이미애,이미자,이병호,이병훈,이상민,이상철,이선화,이선희,이수정,이숙희,이순자,이승묵,이승욱,이안,이영,이영선,이영숙,이영진,이용미,이용선,이용희,이윤경,이윤후돌잔치,이은석,이은원,이재영,이정구,이정아,이정양,이준현,이지만,이지윤,이지은,이진목,이찬주,이창자,이충열,이태희,이택근,이현기,이현민,이현자,이현정,이홍석,이화순,이화영,이희원,이희일,임경득,임경환,임국현,임상진,임상희,임성순,임완규,임재형,임준형,임준홍,임호진,장다운,장명일,장미,장성환,신선희,장윤혁,장희정,장수만,장순복,장영숙,장영진,장예원,장옥자,장익희,장철영,전라래,전민우,전세광,전오환,전지협대전,정대진,정미애,정병목,정순열,정승혜,정연숙,정연제,정영미,정용훈,정원경,정윤주,정은혜,정재욱,정종근,정주영,정주환,정찬영,정혜란,정혜진,조남희,조복단,조복래,조복임,조수정,조은지,조은희,조인명,조인목,조인숙,조인제,조장현,박해옥부부,조준래,조준희,주성희,주영자,주전자팀,중화고등학교1학년3반,지현석,차미숙,차은선,차종아,채성익,채우호,채홍섭,천우김학천선교,천호식품(주)서울,최경일,최미선,최민성,최미나,최성봉,최성희,최순지,최영희,최은주,최이연,최재철,최종혁,최진자,최철호,최태수,추영신,큰은혜교회,태흥철강공업(주),한경남,한광욱,한국오츠카제약(주),한상길,한성호,한세훈,한용성,한희석,해피그린서비스,허남건,허동춘,허진숙,현경자,홍근보,홍대유,홍동욱,홍석주,홍신표,홍준호,홍희순,황금자,황미애,황미지,황성철,황영옥,황진익 (가나다 순)

밥퍼나눔운동 11월 후원금 명단

11/11~12/10

도경민, 신민수, KB국민은행사회협력부, 향희돈, 광현교회, 권혜진, 윤현숙, 정신남, 임화자, 쌍용양회, 대한지적공사동대문구지사, 소망봉사팀, 에스지엔지, 엄용섭, 수도권산악회, 정가왕, 이희숙, 박종일, 황재영, 국순애, 희망브리티시봉사단, 한국오츠카제약, 산업연구원, 외교부, 서리차드현, LB 인베스트먼트, 이자교회(이동원), 양민영, 서장선, 김재하, 정서용, 상록자원봉사단, 건설공제조합, 공무원연금공단, 번성하는104, 구미목장교회, 이윤후돌잔치, 한국벤처투자, 최주영, 유은미, 금융위원회, 조장현, 박해옥부부, 동일교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에이엠지코, 천호식품, 서울교육연수원, 강은국, 수도권산악회, 동아쏘시오홀딩스, 국방홍보원, 네오플렉스, 사랑나눔행복나눔, 허벌라이프

후원물품 명단

서울우유 유유외 2016개, 드림재단 빵3200개, 무명 배추100포기, 서리차드현 쌀 100kg, 진수용 쌀 120kg, 박성준 쌀100kg, 무명 쌀 260kg, 김다나 쌀 400kg, 계란1판, 조미경권사(소마교회) 김장김치 1통, 굴6박스, 파스퇴르(주) 사과주스 16박스, 경흥농원 굴10kg*100박스, 무명 돼지고기 9kg, 국민은행 쌀 1940kg, 동대문구청 김장김치 200kg, 지원군 쌀 60kg, 경희초교 김장김치 100kg.

다일작은천국

후원금 국군중앙교회,김은희외3인,김정복,김홍덕,남기풍,넥서스 후원금품 씨엠비동서방송,2013년케이블대금무상지원,최수진 쌀 20kg 50포,신한카드 김치10kg 10포,쌍용양회, 18만원상당 청소용품 지원,sk증권 2백만원 상당 생필품,익명의 큰글자성경 30권 최옥희,한국중부발전(주),EHDS

-현장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일은 여러분의 맑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 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일부가 다일공동체에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01270347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전화 02-2214-0365

설곡산다일공동체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전화 031-585-2004

다일천사병원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전화 02-2213-8004

다일작은천국

E-mail bjgjesus@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전화 02-2213-8004

다일평화의 마을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619-48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전화 031-568-5004

중국다일공동체

E-mail bom@dail.org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전화 86-183-4339-7009

070-7792-5451

베트남다일공동체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캄보디아다일공동체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전화 855-78-70-8080

070-8220-3940

필리핀다일공동체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전화 63-927-560-7346

070-8220-3278

네팔다일공동체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전화 977-98494-58330

070-8201-5833

탄자니아다일공동체

E-mail dail8004@gmail.com / hslee0304@hot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전화 255-786-740-003

070-4099-8686

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잊지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일 후원가족 여러분.

늘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코드40)으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기부금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되는 **회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이 올바른 주소지로 발급되도록 **주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일공동체 홈페이지(www.dail.org)에서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변경

회원가입하신 후 후원하신 내역확인이 되지 않으실 경우 다일복지재단 후원관리실(02)2212-8004로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다일복지재단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일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www.dail.org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온라인증명서 발급 → 기부금영수증)



우편 수령하기

2014년 1월 중순 경,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후원금액 합산 기준

2013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납입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는 12월 20일까지 납부해주셔야 2013년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됩니다.

지रो로 납부하시는 경우는 12월 26일까지 납부해주셔야 2013년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됩니다.

천사를 찾습니다!

개신교 최초 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천사가 되어주신 분들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천사후원을 해 주신 많은 후원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차 천사부터 현재 9차 천사까지 모든 후원회원 분들께
소식지로 전화로 다일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어
그분들께는 안타깝게도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다일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오니
천사운동에 동참해주신 천사회원이신데,
소식지 「다일공동체」와 다일의 행사 소식을 받지 못하시거나
그런 분을 알고 계신다면
다일복지재단 후원관리실 02.2212.800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을 위한 천사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천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



다일영성수련

2014년 1분기

1단계

152기 1월 13일(월) ~ 1월 17일(금)

153기 2월 24일(월) ~ 2월 28일(금)

154기 3월 24일(월) ~ 3월 28일(금)

대표 | 최일도 목사

서울다일교회 담임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었다.”

-한비야(전 월드컵전 구호팀장)



“4박 5일의 시간이 제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 침묵하면서 하나님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어. 창조의 질서가 보여서 참 신비하고 놀라웠던 사물을 보는 힘, 진실을 아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온몸으로 느낀 것 같아. 그 진실이 보이니까 제 자신과 예수님이 보였던 것 같아.”

-류승완(영화감독)

설곡산다일공동체 T : 031)585-2004
www.dail.org H: 010)7756-8004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다일공동체)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